

# 미국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입출국 시 까다로운 대면심사 때문에 힘드셨죠?  
6월 13일 시행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로 미국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미국에 방문하세요.



## 국민의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 절차



※ 자세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共 ZONE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SUMMER THEME **축제는 시작됐다!**

IMMIGRATION NOW ▶

체험, Korea!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에 반하다, 강릉 우리팀 포커스 출동! 이민특수조사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호주대사관 Mirta Gonzalez 이민관 WOW 출입국 탐방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도와 한국은 같은 날, 같은 의미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8월 15일은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독립기념일.

두 나라에 하나의 기쁨이 공존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과 각종 행사를 하듯

인도에서도 이날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들고 퍼레이드에 참석합니다.

또, 각종 축하행사를 열어 독립기념일의 기쁨을 나누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김새도 문화도 다른 한국과 인도를 이어주듯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세계인의 화합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인(韓印)교류회 'Indo-Korean Foundation'이 주최한

'두 나라 한 기쁨 Two Nations, One Shared Joy' 8·15 합동 축하 공연 사진

사진 제공 사단법인 한인교류회

## ‘남’이 아닌 ‘우리’

### 한국은 세계인의 무대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다섯 번째로 맞는 ‘세계인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가 공동 주최하여 더 뜻깊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의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입니다. 휴일을 맞아 방문해 주신 각 계 인사 여러분과 외교사절,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해 그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빠르게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는 요즘 우리들에게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남’이 아닌 ‘우리’라는 포용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 곳곳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새날학교’, ‘지구촌학교’ 등을 세워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일반인과 단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는 학생 봉사단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20만 명 시대, 해외우수인재와 근로자 외에 한국을 배우려는 유학생까지.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을 차치하고도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현상은 무척 고무적이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름철 소낙비가 그친 뒤 햇살 아래로 펼쳐지는 무지개를 두고 일곱 빛깔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색상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의 신비로움처럼,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도 신비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듯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하겠습니다.

## Korea, a Wide-Open Global Stage

### Embrace foreigners as “one of us” rather than “the others”

This year's May 20th marked the 5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 Particularly, the event was all the more meaningful since it was co-hosted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ity of Ansan which is a city that is heavily populated by foreigners. Together Day is a designated anniversary designed to create a society where Korean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out of respect of each other's culture and tradition. The weekend day event was heated with influential figures from each field, diplomats,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all 3,000 participants in total.

As Korea is fast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now is the time to embrace and respect the culture and tradition of “one of us” rather than “the others”. The government advocate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put in place across the country. An emerging number of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devote themselves to the education of foreign worker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eenage volunteers are supporting multicultural children at social service centers built by each local government.

Aside from short-stay tourists, an average of 1 million or over foreigners are living together in the Korean society, from 200,000 marriage migrants to global talents, foreign worker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tudents desiring to learn more about Korea. In this regard, such trend can be seen as a very encouraging and welcoming news.

It is often said that a rainbow stretched out beneath the sunshine after a summer shower is combined by seven different colors. As such a natural wonder of beauty mingled with distinguished colors, a multicultural Korea will grow as a country of wonders and beauty. As there is a saying that goes “After a storm comes a calm”,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set the law and order in the right direction towards everyone's happiness in this land. 🌈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ng Se LEE



# 共 ZONE

2012 SUMMER NO.26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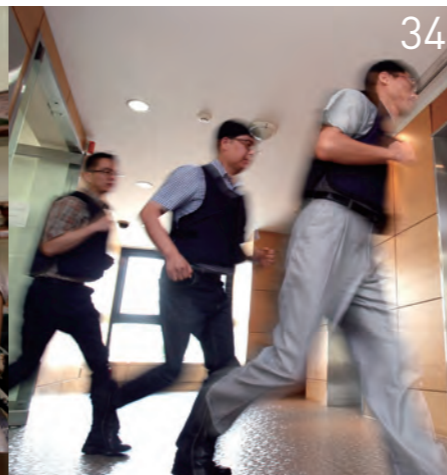
12



18



22



34



40

## CONTENTS

- 02 공존의窓
- 03 Editor's Message 한국은 세계인의 무대입니다

##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세계인이 하나되는 축제가 시작됐다
- 08 Theme Guide 장기체류자를 위한 출입국 서비스
- 12 Theme Site 제5회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을 가다
- 16 Theme Review 한국,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어요!

- 18 체험, Korea! 강릉의 쪽빛바다와 먹거리에 반하다
- 22 Happy Together 필리핀 딸과 한국 양엄마
- 24 희망교실 스케치 재한외국인의 야간수업 현장
- 27 출입국 NUMBERS 인천국제공항 ASQ 7년 연속 세계 1위
- 28 공존 초대석 한국에 빠진 프랑스인 CEO 크리스토프 비라드
- 32 출입국 Q & A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 & 혼인귀화 신청

## IMMIGRATION NOW

- 34 우리팀 포커스 건전한 체류질서 선구자 '이민특수조사대'
-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이민관
- 40 WOW 출입국 탐방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46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80
- 48 출입국 News 2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51 옷에서 배우는 한국 시원한 여름나기 '모시옷'



36



### COVER STORY

#### 국경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우정

싱그러운 미소가 상큼한 다니엘·메건·샬롯·타쿠야 씨는 올해 2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유학생 4인방.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교내 국제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한국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학생들과 함께 MT를 가고, 축제 등 각종 행사 준비를 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터득하고 우정까지 쌓을 수 있었다고, 한국과 외국 학생들이 국경을 초월해 서로 소통하며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다.

좌측부터\_ 다니엘(네덜란드 20), 메건(미국 19), 샬롯(네덜란드 23), 타쿠야(일본 22)

# THE FESTIVAL BEGAN

세 계 인 이 하 나 되 는 축 제 가 시 작 됐 다

## 01

### THEME GUIDE

장기체류자를 위한 출입국 서비스

## 02

### THEME SITE

제5회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을 가다

## 03

### THEME REVIEW

한국,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어요!

- 지난 5월 20일 제5회 '세계인의 날' 축제가 열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한 자격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불편 없이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은 체류제도의 개선, 체류절차 간소화, 한국생활 적응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도입된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는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작년 8월부터는 대상자를 교수, 회화지도, 연구원 등의 자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늘어나는 외국인 국내 투자자를 위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외국인 관련 각종 서류를 전자민원 온라인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및 자립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아닌 일반 체류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교육 참여가 곤란한 이민자에게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해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을 돕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시행기관을 기존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16개 출장소까지 확대하고 이주자에게는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맞벌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친정부모와 가족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동포의 정착을 위해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절차도 마련했다.
- 이렇듯 장기 체류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서비스는 해외우수인재 및 우수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며, 체류외국인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되어 글로벌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힘이 되고 있다.



국내 거주 체류외국인이 2011년 기준 139만 명을 넘었다. 따라서 유학생, 근로자, 우수인력,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급증세다. 한국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치를 시작하는 그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의 불편 없는 한국 생활과 문화적응,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urpassed 1.39 million as of 2011.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for a long term is also on a sharp rise from international students to foreign workers to overseas talents to marriage migrants. They are making a new life-changing step in Korea.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them multi-faceted assistances for their life, cultural adaptation and social independence in Korea.

## 빠른 정착 돕는 방방곡곡 서비스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 Nationwide Services for Fast Settlement Stay Happy in Korea



#### 해외 우수인재 장기체류 돕는 각종 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0년 2월부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에게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수 평가에서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2011년 9월 1일부터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자격(F-2) 변경 대상자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까지 확대하였다.

또,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체류를 계속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정보기술,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가 영주자격 신청 시 일정 소득 이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수근로자의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외국 우수인재, 숙련기능근로자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Various policies to help overseas talents get long-stay visas

Since February 2010,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has been implementing a policy of granting F-2 (Resident) visas to professional workers based on the point system. This scheme allows those professional workers who fall under the

<거주자격 부여 점수제 평가표> 법무부 고시 2011-384호, 2011.9.1

구분 (배점)	공통 항목(90점)				가감점 항목 (30점)		총점 (120)	합격 여부
	연령 (25)	학력 (35)	한국어 능력 (20)	현 소득 (10)	가점 (30)	감점 (-5)		

standard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change their status of stay into the status of F-2 under which the bearer will not be restricted on any work activity. Those who earned over 80 points out of 120 are eligible for the new scheme.

Since September 1, 2011, KIS has expanded the eligibility of the point-based policy to grant F-2 visas to the professionals with E-1 (Professor), E-2 (Foreign Language Instructor), E-3 (Researcher), E-4 (Technical Trainer), E-5 (Professional), E-6 (Artist & Entertainer), E-7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D-2 (International Student), D-5 (Press), D-6 (Religious Worker), D-7 (Intra-Corporate Transferee), D-8 (Corporate Investor), D-9 (Business Trader), D-10 (Job Seeker) visas who have been lawfully staying in Korea for over a year.

KIS has offered benefits to the foreign worker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Upon a request of the industry to provide an easier access to F-2 visas to skilled foreign workers, KIS has implemented the policy of granting E-7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visas to those foreign workers who meet a certain qualification since October 2011.

#### 불편 없는 한국 생활, 온라인으로 OK~

최근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면서 기업투자자(D-8)와 그 가족(F-3)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투자자(D-8)의 체류기간 연장 및 동반가족 중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른 체류자격에서 동반(F-3) 자격으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외국인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고용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가사보조인을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소득 기준을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로 완화하고, 가사보조인의 연령 제한을 5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자민원 처리 온라인 사이트 '하이코리아'는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학생(D-2) 및 여학연수생(D-4-1) 자격 소지자가 시간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또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거

소이전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편의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No Problem with Life in Korea, just Go Online

With an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KIS has significantly streamlined the procedure of permit for stay to D-8 (Corporate Investor) and F-3 (Accompanying Family Member) visa holders. From July 1, 2011, the nation-wide immigration offices provide one-day one-stop services including the permit for extension of stay of D-8 and F-3 visa holders and the change of status of stay to F-3 visa.

In addition, KIS released an improved policy for foreign investors and professional workers in employing domestic workers. Under the new policy, the foreign professional workers' income criteria for hiring domestic workers has lowered to three times of last year's GNI per capita and the age cap imposed on domestic workers has revised upward to 58 years old.

The online immigration service website "HiKorea" has provided reformed services to allow D-2 (International Students) and D-4-1 (Language Students) visa holders to make online applications for Permit for activities beyond status of stay for the purpose of part-time work as well as notification of change of residence. KIS plans to keep expanding the scope of online immigration services to provide more convenience to foreign residents.



**장기체류자의 적응과 자립, 다각도 지원**

2009년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참여자들과 운영기관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는 총 10,202명, 신청자의 64%인 6,519명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 4,971명(76.3%)으로 가장 많고, 방문 동거 534명(8.2%), 기업투자 159명(2.4%), 유학생 154명(2.4%), 비전문 취업 148명(2.3%), 방문취업 111명(1.7%) 순이다. 결혼이민자 외에 체류외국인의 참여율 증가 원인은 일반 영주자격(F-5-1) 변경 시와 특활활동(E-7) 변경 시 한국어 시험점수 제출 면제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이 확대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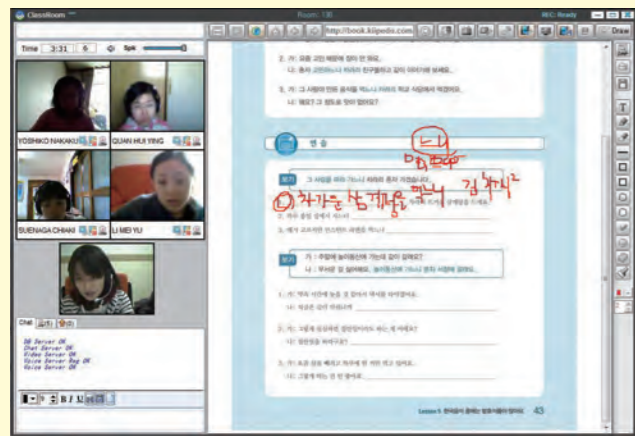
또한 원거리 거주자들과 임신·출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참여가 곤란한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교육은 강사와 이민자가 1:4로 컴퓨터 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주간반 외에 야간반이 개설된 2011년에는 직장 때문에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회화강사 등의 참여가 늘어 총 139명이 참여했다.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구분	거점	일반	합계
대학	33	14	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49	55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	40	43
민간단체	5	84	89
농협은행	0	29	29
총계	47	216	263

※ 자립형 : 66개(다문화센터 55, 기타 11), 지원형 : 197개

**<온-라인 화상교육 화면> 한국어 중급 과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1년 7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게 체류·초청·국적, 기초생활 지식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확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을 기존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16개 출장소까지 확대하였다. 이 수자에게는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해 결혼이민자의 편의 증진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1년 8월 1일부터 친정부모와 가족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결혼이민자 부모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가 동시에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친족(4촌 이내 혈족, 인척)으로서 부모가 사망,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곤란하고 출산·육아 지원 목적인 경우 여성가족 1명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Multi-faceted Assistance for Integration and Self-Sustenance**

In 2011, an increased number of foreign residents (excluding marriage migrants)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hich was introduced in 2009. Behind the trend seems that those who changed their status of stay to F-5-1 (General Permanent Resident) and E-7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can enjoy more benefits to complete the program by being exempt from submitting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Starting from 2010, an online video training program has been being operated to provide an easier access to education for those immigrants having difficulty in attending the offline class for many reasons including long distance, pregnancy, child delivery and impairment. Online training program is a system that provides real-time training session through a webcam in ratio of 1 instructor to 4 immigrants with an option of daytime and eveningtime class.

In July 2011 KIS established the guidance on completing Happy Start Program and expanded implementing agencies from 14 immigration offices to 16 immigration branch offices. The graduates will be granted the status of stay that is valid for at least 2 years.

From August 1, 2011, a newly revised policy was released that allows children and relatives of marriage migrants to stay for a long term. They will be issued F-1 visa (Family Visit) to stay from the day of arrival to a maximum of 4 years and 10 months.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국내 거주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139만 명을 넘었고, 이중 재외동포가 약 39%에 이르고 재외동포 중에서도 중국동포가 약 87%이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만 25세 이상 구소련 및 중국지역 동포들에게 취업범위 확대 및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H-2) 제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재외동포 기술교육 제도 개선 및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신규입국절차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방문취업·기술교육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누구나 인터넷(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체류외국인 증가 등으로 출입국

에 관한 사실 증명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방문민원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을 확대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 후 기다리는 불편이 있는 자치단체의 팩스민원처리는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즉시 발급이 가능한 자치단체 직접발급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매년 정부 합동고충상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충상담에는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건강관리협회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내과·부인과·한방 등 건강검진과 구강검사·스케일링 등 치료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Settlement Support for Ethnic Koreans and Customer-Friendly Servic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on the rise, with 1.39 million as of 2011. Around 39% of them are ethnic Koreans and 87% of the ethnic Koreans are from China. In particular, the policy for work visit, launched in 2007, expanded the scope of work activities and allowed free entry and departure for ethnic Koreans from CIS and China, aged over 25,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ethnic Koreans from abroad. In addition, KIS has improved the technical training program for overseas ethnic Koreans and established a new entry procedure for work visit visa holders and technical trainees.

From 2011,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has been abolished. Instead, any ethnic Koreans in China intending to enter Korea for the purpose of work and technical training are allowed to make an online preliminary application at www.hikorea.go.kr. During the preliminary application period from Nov 15, 2011 to Dec 15, 2011, 12,000 applicants for technical training and 30,000 applicants for working were issued H-2 visa (Work Visit).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KIS has given an expanded scope of authority to any local governments with an easier access to the public, to issue the immigration-related certificates.





‘만나서 소통하며 나눌 때 하나 되는 세계인의 날’이 오늘 축제의 슬로건. 다양한 외국인들이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번 행사의 개최지인 안산시는 거주 등록외국인 수가 무려 4만 5천여 명이나 되는 다문화특구로 다문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축제를 홍보하기에도 적격이었다.

이날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행사장은 4개의 ZONE(만남존, 소통존, 나눔존, 하나존)으로 나뉘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 퍼레이드, 기념식, 다문화 먹거리, 유학생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을 맞았다. 그 밖에도 무료 의료서비스, 네일아트, 국제무료전화 이벤트 등 외국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사도 마련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

형형색색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각국 참가자들이 신명 나는 사물놀이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우즈베키스탄, 태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10개국 2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다문화 퍼레이드. 이들은 사물놀이패와 함께 행렬을 이뤄 행사장 곳곳을 돌며 본격적인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곧이어 해돋이극장에서 진행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무대를 압도한 ‘세계태권도 아카데미’ 시범단의 우렁찬 구령은 기념식이 형식적이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순식간에 날려주었다. 태권도 단은 절도 있는 격파시범과 함께 한국가요에 맞춰 태권 체조를 선보였고,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전행사를 함성 속에 마무리했다. 또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 김철민 안산시장, 필리핀대사,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중국총영사 등 주요인사들과 10여 개국 1,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워 기념식은 더욱 열기를 더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해 1천만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적법 등을 개정하여 재한외국인이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이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합니다.”라고 전해 박수를 받았다.

**나누고 소통하는 한마당 축제  
나눠요, 소통해요~ 한바탕 웃어요~**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청명한 하늘만큼이나 아침 일찍부터 광장으로 모여드는 외국인들의 얼굴엔 함박 웃음꽃이 피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제5회 세계인의 날 축제가 열리기 때문. 특히 올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내 최대 외국인거주 도시 안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내·외국인 5천여 명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만든 축제 현장을 찾았다.





###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인공!

역시 축제의 꽃은 누가 뭐래도 장기자랑대회. 이번 축제에선 유학생장기자랑 무대가 방문객에게 단연 인기였다. 참가 50팀 중 사전 예선전에서 선발된 12팀만이 본선무대에 올랐고, 각 대학을 대표하는 유학생 참가자들은 화려한 전통의상을 갖추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 전통춤을 선보였다. 아직 학생들이라 다소 어설픈 실수에도 관객들은 매번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국중합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태국팀에게 돌아갔다. 오보어로 연주되는 K-POP에 맞춰 태국전통춤을 선보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이들은 이리랑과 태국전통춤을 절묘하게 조화시켰으며, 공연 마지막에는 한지 위에 붓으로 한복을 그려 넣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과 태국의 문화가 서로 어울리듯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융합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춤과 음악으로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국팀의 흥일점인 프란시카 캔드라(인도네시아 24) 씨는 "교수님 추천으로 참가했는데 최우수상까지 받게 돼 정말 기뻐요. 태국과 한국문화를 조화롭게 표현해 '하나 되는 세계인의 날'을 전하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상금은 사이좋게 나누어 학비에 보탬이요."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 보기만 하는 축제 No,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OK

"한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소통존에서 보자기기방 만들기를 체험한 수시 라스투티(인도네시아 39) 씨는 딸과 함께 직접 만든 보자기기방을 흔들며 보이며 활짝 웃는다. 그녀는 "친구가 페이스북을 통해 축제를 소개해줘 오게 됐어요. 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 즐겁네요."라며 즐거워했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받을 정도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외국인 우리말겨루기대회. 기본적인 단어부터 한국어지리 분야까지 폭넓은 범위의 퀴즈문항이 참가 외국인들을 긴장시켰다. 퀴즈의 묘미는 역시 정답보다 오답에 있는 법. '한글을 만든 이는? 효종대왕!',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한국 음식은? 생강과 고추!', 참가자들의 당당한 오답에 관중들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졌다.

다른 행사장 한쪽에선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먹거리 행사가 인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등 총 8개 나라의 전통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음식을 맛보며 정을 나누었다. 와나차판(태국 45) 씨는 "태국 대표 음식인 쌀국수와 뽕쌈야 등 여러 음식을 준비했어요. 태국음식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음식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어요."라며 직접 만든 음식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인재금 사무관은 "각종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고, 2~3천여 명 방문객을 예상했는데 5천여 명이나 참가해 행사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하게 됐습니다."라며 만족했다.



**"지역민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발전하길"** ● 지금까지 '세계인의 날' 축제는 서울광장 등에서 기념식 위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문화특구가 있는 안산시와 함께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재한외국인의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다문화 퍼레이드'는 200여 명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해 다문화사회를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장기자랑'을 진행해 유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축제는 안산시 이외에도 서울, 부산 등 총 5곳에서 진행되었고 외국인들의 참여와 호응도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의 날' 축제를 확대하여 각 지역민이 주축이 되는 한마당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이동휘 과장





# 한국,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어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건너 온 다양한 외국인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저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이 한국정책에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에서 그들을 만났다.

**로리(36 필리핀) / 결혼이민여성** ● 1남 1녀를 키우고 있는 6년 차 주부예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죠. 아이들을 믿고 맡길 도우미 찾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나 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늘처럼 외국인 고충상담 서비스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장후매(24 중국) / 유학생** ● 저는 올해 졸업반이고 한국 기업에 취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 걱정이죠. 답답한 마음에 교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취업을 하지 않아도 점수평가제에 의해 거주자격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체류 비자 자격을 얻을 생각입니다.



**제리(25 에티오피아) / 근로자** ● 한국의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일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해서 한국생활에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저 같은 비전문취업자도 전문기술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출입국사무소 안내를 통해 알게 됐죠. 한국어 실력을 키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니파(29 방글라데시) / 결혼이민여성** ● 남편 사업 때문에 7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생각처럼 한국어가 늘지 않아 고민이에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집 근처에 마땅한 곳이 없어 포기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역 농협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더군요. 곧 개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바트치멕(32 몽골) / 근로자** ●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동료들과 함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했는데 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어렵더군요. 하지만 온라인 화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할 수 있다니 꼭 이용해보고 싶어요. 온라인 교육도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수강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마리나(33 러시아) / 결혼이민여성** ● 러시아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온 지 7년째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저 같은 입장의 다른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Dive into the indigo sea  
and taste the fresh food!

# GANGNEUNG

쪽빛바다에 풍덩 빠지고 신선한 먹거리에 반하다



###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강릉은 경포대, 오죽헌, 주문진, 정동진 등 다채로운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다. 강릉의 인구는 21만 7천여 명(2012. 2)에 불과하지만 소금강과 대관령, 각종 해수욕장 등으로 인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분주한 도시.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12만 명 정도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릉은 풍요로운 대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오대산국립공원을 비롯 동해와 대관령 양떼목장, 경포호 등의 명소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또 한편으로는 오죽헌, 선교장 등 각종 정자가 곳곳에서 옛 선조의 숨결을 물씬 풍기게 해준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버스로 3시간, 기차로는 6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예정인 고속철도가 들어서면 1시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걸음에 닿을 정도로 서울과 더욱 가까워 질 강릉의 대표관광지와 아는 사람만 간다는 숨은 명소까지 다양한 강릉투어 코스를 소개한다.

### A city where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s co-exist

Located on a similar latitude as Seoul, Gangneung is a city containing diverse tourist spots such as Gyeongpodae, Ojukheon, Jumunjin, Jeongdongjin and more. Although the population of the city is only about

217,000 (as of Feb. 2012), over 1 million people come to the city annually to visit the Sogeu River, Daegwallyeong and numerous beaches, of which 120,000 visitors are foreign tourists, and this number is increasing every year. Gangneung boasts rich environment and tradition. The extraordinary sceneries of the famous sites such as the Odaesan National Park, the East Sea, Daegwallyeong Sheep Farm and Gyeongpo Lake captivate visitors. On the other hand, various jeongjagaks (T-shaped house for sacrifice before a royal tomb) such as Ojukheon and Seongyojang allow people to feel and experience the

footprints left by our ancestors.

At present, it takes 3 hours to travel from Seoul to Gangneung by bus and 6 hours by train. However, this is expected to be shortened to 1 hour upon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speed rail, which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efore the open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ere, we will recommend the perfect itineraries for those who are planning to travel to Gangneung that will include the iconic tourist sites of Gangneung as well as the hidden attractions that you are bound to love.

### Jeongjagak tour on a bicycle

Even if you haven't been to Gangneung, you have probably heard of the infamous Gyeongpodae beach. However, there aren't many people who know about Gyeongpo Lake, where you can enjoy its picturesque beauty from every angle. There are especially many jeongjagak around Gyeongpo Lake, which demonstrates that our ancestors were captivated by its beauty as well. There are some 10 jeongjagaks around the area such as Haeunjeong and Geumnangjeong that offer a place of rest for the visitors. Rent a bicycle at the lake entrance and ride around the lake. Take short breaks in the jeongjagaks and cool yourself down with a hand-held fan to feel like a classic scholar of the past.

### Re-energized with fresh seafood! Jumunjin, Sodol

When you arrive at the Jumunjin Fish Market, you will first be greeted by statues of diverse fish and squid species inhabiting the shore of Gangneung. Upon entering the market with densely packed stores and restaurants, you will be able to taste freshly grilled squid, sand eel, sailfin sandfish and more. As you walked through the small alleys of the market and enjoy the pleasant smell of grilled fish, you will suddenly find yourself heading into one of these restaurants to taste the food.

When you head to the waterfront area, you will be in full view of the Sodol Adeul Bawi Park, which is yet an unknown paradise. At the park without signs or mileposts, you will find a group of a dozen women gathered together to clean a variety of natural seafoods collected or caught out from the sea.

### Unique blend of the sea and coffee, Anmok Port Coffee Street

The landscape of Anmok Port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astal landscapes. In place of restaurants serving hoe (raw fish), there are diverse coffee shops lining the street. Some 10 years ago when there were no decent coffee shops, it

"Gangneung is a city with a harmonious blend of nature and tradition"

My family and I visited various places such as Ojukheon and Gyeongpodae. The ocean view from Gyeongpodae was picturesque. At Ojukheon, I felt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

Cora [15, U.S.] / Tourist



### Recommended Sites in the District of Sogeu River in Mt. Odae!

#### Sogeu River Auto Camping Site

At the Sogeu River Auto Camping Site, you can enjoy camping while being surrounded by beautiful rocks and crystal clear waterfalls. It is famous for its latest amenities such as shower stalls, kitchens, bathrooms and parking lots. Situated near several beaches, you can enjoy the beauty of the mountains, valleys and the sea all at the same time. For inquiries, contact 033-661-4161.



#### Noinbong (Peak)

Noinbong (1,338m), the peak of the Sogeu River Valley, is famous for its exquisite view. When you reach the peak of Noinbong, you can enjoy the immaculate view of Mt. Seorak, Cheonghak-dong Sogeu River, Jumunjin, and the East Sea. It's been said that on days of good weather, you can also see the Daegwallyeong Farm from here. Noinbong is also a famous spot to watch the sunrise. For inquiries, contact 033-640-5420.



#### Food Alley of Sogeu River

At the mouth of the Sogeu River, there is a food alley densely packed with restaurants that appeal to the travelers after hiking. The most common dishes available are Sanchae-bibimbap and Sanchae-hanjeonsik, which are made using various vegetables collected from Mt. Odae. Experience the taste and generosity of Gangneung as you enjoy an abundant traditional Korean meal.



#### Interpretation Services for Foreigners

Description: interpreters providing travel information to visitors (available languages: English, Japanese and Mandarin)  
Locati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Gangneung Terminal, Jumunjin Fish Market, Gangneung Station, Gyeongpo Lake)  
Available Hours: 9 am to 6 pm everyday (Jumunjin office is closed on Mondays)  
Inquiries: 033-1330



was popular among the tourists to buy coffee from a vending machine and drink it while viewing the ocean, and this area gained fame as a popular dating place for couples. Later, many famous baristas established their coffee shops here, which helped Gangneung become known as a city of coffee. At present, there are cozy cafes all over Gangneung including Gyeongpo and Sacheon,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e production of 'Gangneung Coffee Map.' Enjoy the romantic experience of drinking coffee while facing the cool sea breeze of the East Sea.

### Chamsori Gramophone Museum, which is more famous overseas

The Chamsori Gramophone Museum, situated near the Gyeongpodae beach, houses nearly 6,800 exhibition items. What is amazing is that these items are all from personal collections. The Chamsori Gramophone Museum is connected to the Edison Science Museum, which was recorded in the Guinness World Records for having the highest number of Edison's inventions in the world.

It may seem ironic for people to go to Gangneung, and not to the U.S., to see the inventions of Thomas Edison. Nick Romeijn (21, Netherlands), who visited Korea during her school vacation, stated, "I went to many places in Gangneung including Ojukheon and Gyeongpodae, but I found th Chamsori Gramophone Museum the most interesting. It was unfortunate that there weren't any interpreters on site and I had to have my aunt explain the exhibition items for me. But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to listen to music using old gramophones."

### A full view of the deep blue ocean of the East Sea - Gangneung Sea Train

All seats in the sea train traveling between Gangneung and Samcheok face the ocean. The windows are also bigger than the typical train windows to allow the passengers to enjoy the full view of the sea. The sea train, which operates on a 58-km route along the coastline, stops at major tourist sites. There are additional train schedules in August, and you can book your tickets in advance via the official web site (www.seatrain.co.kr). You can choose from general tickets, premium tickets and tickets for the proposal room. You can also submit your stories or request songs, which will be broadcasted during the trip. This is the perfect item for those who want to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with their family or significant other. 🎧





## ‘가족의 탄생’이 별건가요 情이면 충분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파올리나(28) 씨와 그녀의 양엄마 선명숙(58) 씨가 그 주인공. 혈육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국적과 혈연의 벽을 뛰어넘어 애뜻한 모녀의 정을 나누고, 다문화 가정에 희망을 주는 그들을 만났다. (우측부터 파올리나, 송명섭, 선명숙, 페, 송인찬, 양종욱)

### 우연한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파올리나 씨는 지난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송인찬(47) 씨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KBS 대전방송국에서 이들의 사연을 듣고 무료결혼식을 주선한 것.

그러나 당시 필리핀에 살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은 사정상 참석할 수 없었고, 파올리나는 혼자서 예식을 치를 상황이었다고. 이때 전통 떡 전문가로 행사에 참석한 선명숙 씨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녀의 ‘양엄마 역할’을 자처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

선명숙 씨는 “그날 행사장에서 떡전시 행사가 있었는데 마침 제가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파올리나의 인상이 무척 순수하게 보여 더욱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라고 했다.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를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한 선명숙 씨는 그 후에도 양딸 파올리나에게 한복을 지어주거나 떡과 음식을 전해주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정을 쌓아나갔다.

### 힘든 세상, 안식처 같은 존재

저녁 7시, 오늘따라 선명숙 씨 집이 왠지 낯설다. 파올리나 씨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갖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까지 있는데 파올리나 씨의 친엄마 페(69) 씨까지 한자리에 모여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말로만 전해 들던 양엄마를 직접 만나니 감사하고 기쁘죠. 딸이 한국으로 떠날 때 임신 중이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머나먼 한국에서 우리 딸을 도와주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안심입니다.” 페 씨는 자신을 대신해 딸을 챙겨주는 양엄마 선 씨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명숙 씨가 운영하는 떡카페에 모인 가족들은 송편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다. 양엄마의 능숙한 시범과는 달리 송편을 처음 만들어 보는 파올리나 씨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기만 하다. “그쪽을 좀 더 눌러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훈수에, 양엄마는 “처음 만드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우리 딸 잘하고 있어!”라며 파올리나 씨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파올리나 씨는 양엄마를 만날 때마다 한국 전통 떡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한국생활 적응에 재미를 붙였다. “양엄마는 제가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 음식을 잘 만들고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세요. 매사에 다정하게 챙겨주는 양엄마를 통해 한국인들의 친절과 마음 씀씀이를 알게 됐죠. 양엄마는 힘겨운 세상살이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존재예요.”

아쉬운 건 두 모녀의 언어소통인데, 파올리나 씨의 한국어가 서툴러 서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고. “빨리 한국말에 능숙해서 양엄마에게 우리 아들 명섭이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거든요.”

사진촬영이 취미인 선 씨는 최근 들어 손자 명섭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취미가 됐다. 웃는 얼굴은 모두 아름답지만, 이 두 사람 모녀의 웃음이 더 눈부시게 보이는 건 왜일까. 먼 훗날,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만 담긴 ‘파올리나 가족의 탄생’ 앨범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양엄마는 힘겨운 세상살이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존재예요. 매사에 다정하게 챙겨주는 양엄마를 통해 한국인들의 친절과 마음 씀씀이를 알게 됐죠.



螢窓雪案(형창설안)이라 했던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수강생들이 딱 그렇다. 형창설안은 '반딧불이 비치는 창과 눈(雪)이 비치는 책상'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힘쓰는 것을 비유한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이다.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이젠 '내 나라'가 된 외국인들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가. 한여름밤, 만학도의 열기로 뜨거운 희망교실을 찾았다.

# 뜨거운 열정과 집중력으로 즐겁게 공부합니다!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중급 1  
—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ww.korean.ac.kr

## 서울 동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우리 교육원에는 총 46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이민자들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결혼이민자는 현재 13%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송은정 씨는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을 위해 야간수업을 개설했다고. 다른 센터에 비해 일반이민자 비율이 높은 건 바로 이 때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서울 동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운영기관으로 남서울전문학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3년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국적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송은정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미 씨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2012년경 파키스탄 대홍수 때 파키스탄 학생들이 고국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에게 문의했던 것. 당시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홍수사태와 구호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구호단체를 찾아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 다음 수업 땀 파키스탄 홍수재해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토론했고, 학생들은 구호단체를 방문해 구호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선생님과 반 구성원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꼭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우면서 진정한 친구이자, 넓은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선생님도 반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

오늘은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 1' 수업이 있는 날. 저녁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중급 1' 수업을 담당하는 박희선 강사는 학생들의 열정이 뜨겁다고 말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열의가 강해 강의를 할 때도 한국어 문법은 물론 문화까지 폭넓게 가르치고 있다.

“사실,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업을 듣는 7명의 학생도 모두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선생님과 반 구성원들은 한국어 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는 진정한 친구이자, 넓은 의미의 '가족'이다

을 보면서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이 들더군요.”

박희선 강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완벽한 문법과 정확한 표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중급 1' 수업을 듣고 있는 이란에서 온 마지드 씨는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며 24년째 체류하고 있는 '반 한국인' 다름없는 학생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문제없지만 수업을 들으며 한국 사람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됐어요. 수업시간이 늘어나서 더 깊이 있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라는 건 카자흐스탄에서 온 김빅

가  
나  
다



끈기를 갖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해의 폭 넓혀갈 것"**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오랜 전통의 한국어교육전문기관입니다. 주로 유학생이나 기업의 전문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다가 2008년 법무부 ABT대학으로 지정된 후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더욱 다양한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는 거점운영기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들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체류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멋진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김재욱 원장

토리아 씨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국적을 꼭 받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국에선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만 입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며 폐백문화에 대해 알게 됐죠. 한가지씩 모르던 한국문화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고 기뻐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바쁠 텐데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한국문화를 익히는 게 즐겁다는 학생들. 이들의 열정에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해지니, 수업이 있는 저녁시간 교실에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함께**

오후 6시 30분, '중급 1'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19과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경제생활을 주제로 한 대화문을 공부하며 어휘를 학습하는 시간이다.

"오늘의 새 어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라지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없어졌어요란 뜻 같아요."

"맞아요. '사라지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마음에도 쓸 수 있는 어휘예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연필이 사라졌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열심히 받아 적는다. 모두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도 놓칠까 바짝 긴장하고 집중하는 모습. 이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문을 한 줄 한 줄 읽는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학생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읽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문을 읽으며 학습한다. 때로 막히는 부분이 생겨도 옆에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며 수업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다.

"다음 단어 '의욕'을 볼까요? 의욕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의욕'이란 단어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의 기습 질문에 파키스탄에서 온 야곱 씨가 대답한다. "요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이 있어요."

야곱 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진정 공부 '의욕'이 넘치는 멋진 학생들이 아닐까?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요란하게 소낙비까지 내리지만 수업은 계속된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서로의 에너지를 북돋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수업이다.☺

출입국 NUMBER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인천국제공항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7년 연속 세계 1위

Years

지구 위 하늘길로 통하는 관문 공항터미널. 국제공항운영협의회(ACI)에 등록된 전 세계 공항 수는 무려 1,700여 개.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최근 인천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은 무려 35,062,376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출입국하는 전체 이용객의 79.7%가 인천국제공항의 게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분야의 노벨상으로 평가받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공항으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는 세계 1,700여 공항의 협의회체인 국제공항운영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건 평가제가 생긴 이래 인천공항이 처음이라고. 또한 2011년 수상에서 인천공항은 '아·태지역공항' 및 '중대형공항(여객 2,500~4,000만 명)' 부문에서도 1위로 선정돼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 중인 SES(Smart Entry Service) 등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로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한 정책 또한 인천공항이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제 기준의 출입국 수속시간이 출국 60분, 입국 45분인 것에 비해 인천공항은 이보다 3배 이상 빠른 각각 19분, 12분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첨단 공항시설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실시한 결과로 올해부터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의 외국인 이용대상에 8개 체류자격을 추가해 총 10개 자격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14대 추가 설치(인천공항)하여 총 38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 한국의 맛과 한국의 멋에 푹 빠진 “봉주르~CEO”



한국인들은 대개, 외국인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짐작한다. 그런데 이 사람 크리스토프 비라드 씨는 다르다. 2006년 에실로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비라드 대표는 갈색 머리, 파란 눈, 다부진 체격까지 첫눈에 봐도 비즈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서양인. 하지만 그는 평상시에도 한국인 직원들과 어울려 식당과 시장에서 맵고 칼칼한 한국 음식을 즐기는 입맛만큼은 한국인이다.

### 스펀지 같은 매력으로 직원과 소통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비라드 대표가 주문한 메뉴는 육개장. 보통 외국인들은 매워서 입도 못 댄다는 고추장 듬뿍 풀린 빨간 국물을 비라드 대표는 후루룩 들이키며 직원들과 서슴없이 사담을 주고받는다. 사실 에실로코리아는 합작투자 기업이라 외국인 대표이사가 처음은 아니지만 것처럼 빨리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한 CEO도 드물다고. 한 직원은, 비라드 대표가 종로 광장시장에서 노릇노릇 부풀어 오른 파전을 좋아하고 특히 굴파전을 강력 추천할 정도로 귀땀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에실로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며 만난 일본 여성과 결혼해 현재 여섯 살 난 딸아이와 함께 서울살이 재미에 푹 빠져있다. 한국전통과 문화에 유난히 관심이 많고 남해 진주여행을 좋아한다는 토종 프랑스인 비라드 대표. 올해로 한국생활 7년째 접어든 그의 외모는 여전히 외국인이지만 식성과 취미는 한국인을 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낮은 문화를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이 그의 큰 장점인 듯싶다.

에실로는 150년 전통의 프랑스 기업으로 안경 분야 장인

세계화에 발맞춰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을 돕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국가 간 무역협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기업이 활동 중이다. 그 중 (주)에실로코리아는 전 세계 광학렌즈 시장을 선도하는 에실로사와 국내 (주)삼영무역의 합작투자 법인으로 동업계 1위 기업. 크리스토프 비라드 씨는 지난 2006년 에실로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프랑스인 CEO다. 스펀지 같은 그의 한국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업으로 전 세계 안경렌즈 25%를 생산하는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때문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지점을 두고 있어 비라드 대표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만 13년 정도 근무했었다고.

“본사로부터 한국지사 대표를 맡으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 생활 익숙해진 일본과 같은 동양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무척 기대가 됐죠. 일본에서의 경력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갑곶처럼 특 특 튀는 아이디어 경영인

에실로코리아는 본사가 수 십 년 노하우로 독자개발 제작한 누진다초점렌즈 바리락스는 물론 세계적인 안경 렌즈 업체인

일본 니콘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니콘 안경 렌즈를 국내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렌즈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점진적으로 도수를 배열해 한눈에 모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개발한 누진다초점 렌즈 ‘바리락스’는 에실로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에실로코리아는 비라드 대표 취임 이후 2010년 한국인 안구에 적합한 ‘바리락스 칸’ 렌즈를 선보였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평균 안구 길이가 길고 렌즈와 눈의 사이가 먼 한국인 체형조건을 적극 반영해 개발한 것이다.

어두나 소통의 측면에서 비라드 대표는 좀 털털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척 섬세한 스타일이다. 프랑스 대학에서 안광학을 전공하고 줄곧 같은 분야에서 일해 온 그는, 전문가 못지않은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추고 있다. 회사 애플리케이션(App)도 직접 제작해 직원들과 개선점을 논의하며 직접 실무를 처리할 정도라고.

그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나 오래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다. 그는 ‘렌즈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전통 장인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가 지난해부터 ‘전통장인 후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궁시장, 전통 연 장인 등 국내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인들에게 꼭 맞는 안경을 선물하고 작품 활동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2012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프레데 회의 ‘선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원봉사도 펼쳤다. 스페셜 올림픽은 세계 각국 지적장애우 선수들의 스포츠대회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데 이날 비라드 대표는 임직원과 재능기부를 자원한 안경사들과 함께 265명 선수들의 시력 컨디션을 점검하고 500조의 안경 렌즈를 지원했다.

비라드 대표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평균 성인 나이 45세 이상이 되면 노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거라고 여겼고, 그런 장인들의 집념과 정신이 에실로의 철학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애우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이 보다 선명한 시력으로 도전하는 삶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누진다초점렌즈 개발자이자 바리락스 브랜드 창시자인 에실로의 ‘버나드 매트나즈’ 명예 회장의 안경을 향한 장인정신을 본받고자 했다는 게 비라드 대표가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라고.

###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비라드 대표는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즐긴다. 그가 서울살이 하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공공서비스 부분에서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하는 것. 극장, 미술관, 터미널 등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서비스는 있는데 프랑스어 서비스가 없는 것이 늘 아쉽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경험담이다.

그는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여행 전문 블로거다. 처음에는 프랑스어 블로그 ‘서울 위켄드(Seoul Weekend)’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 미(美)가 공존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여행정보가 부족한 게 아쉬워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볼 만한 명소를 개인적인 시각으로 소개한 한국어 블로그 ‘올랄라 코리아’까지 오픈했다. ‘올랄라’는 프랑스어 감탄사로 그는 공통의 관심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올랄라 코리아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 콘텐츠를 살펴다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도 쉽게 지나쳐 버렸던 익숙한 공간, 종로 광장시장이나 신촌거리, 강남 미술관 등을 그는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찬한다. 서울뿐만 아니다. 충절의 고장 경남 진주여행을 적극 추천하는 비라드 대표는 “업무상 전국의 안경점을 돌아다니고 안경사들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해를 갔는데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와 진주의 역사적 숨결에 흠뻑 취하게 되더군요. 진양호의 아름다움도 으뜸이었죠. 남해바다나 진주에 가면 마음이 평온해져요.”라며 지그시 눈을 감으며 당시의 감동을 떠올렸다.

비라드 대표는 세월이 지나 에실로코리아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프랑스로 돌아가 한국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굴파전과 육개장, 김치찌개를 소개하고 싶을 정도라며 씨익 웃어 보인다.

동북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국에는 현재 평균 140만 명의 재한외국인들이 있고 다문화사회로 변화 중이라는 말에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국적·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인재와 정보, 기술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그건 글로벌기업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무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인의 친절함 국민성에 정말 놀랐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비라드 대표가 운영하는 한국 블로그 '올랄라 코리아' <http://blog.naver.com/ohlalalakeoria> (위)와 프랑스 블로그 '서울 위켄드' <https://sites.google.com/site/seoulweekend> (아래)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여행정보가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블로그 '올랄라 코리아'와 '서울 위켄드'를 운영하게 됐죠.



사진 위 양태현 궁시장 공방에서 전통화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비라드 대표  
사진 아래 전통연 명장 리기태 장인에서 용연 제작방법을 배우는 비라드 대표





# Q&A

**부산 00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인입니다. 법무부에서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인재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전담창구' 운영 등 체류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시행일은 7월 9일부터이며 적용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입니다.

서울, 세종로, 도심 공항(일부 신청사항 제외), 투자지원 센터 출입국 사무소에서 우수인재 전담창구를 지정 운영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지문채취 등 포함),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재입국허가 등을 전담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체류지 관할 사무소 신청접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귀하의 근무지 관할 사무소에서도 각종 허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민원 창구를(www.hikorea.go.kr) 이용하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am from the US, and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ABC University in Busan. I heard the new policy for global talents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Please explain the detail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a new preferential policy for global talents by establishing exclusive windows for overseas talents in an effort to provide better immigration services. The new policy has taken effect from July 9th this year for those who hold E-1 (Professor), E-3 (Researcher), E-4 (Technical Trainer), E-5 (Professional) visas.

The designated windows for global talents are put in place in Seoul immigration office, Sejongno immigration branch office, COEX city airport terminal (limited service available) and KOTRA Investment Korea Plaza. The available services at the exclusive window are Permit for Extension of Stay, Notification of Change/Addition of Workplace, Notification of Change of Residence, Notification of Change in Registration Information, Alien Registration (including fingerprint scanning), Permit for Change of Status of Stay, Permit for Other Activities not Outlined by Current Status of Stay and Re-entry Permit. Basically, those services are only available at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residence. However, for your convenience, you may get those services at the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workplace as well. You may also get the permit for extension of stay on the online immigration service website at www.hikorea.go.kr.

**한국 국적인 아내와 결혼 만 3년 차로 만 2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 간이(혼인)귀화 신청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국 간의 혼인관계 입증서류와 재정 관련 입증서류 등을 구비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귀화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간이귀화(혼인동거)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 have been married with a Korean woman for 3 years and have a child aged 2. I want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but don't know what to do. Please give me some heads up.**

A foreign spouse of a Korean national may acquire Korean nationality under the policy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Marriage), if he/she has stayed in marriage with domestic residence for over 2 years in a row or if he/she has stayed in marriage for over 3 years and maintained Korean residence for 1 year. To apply for the simplified naturalization, you may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f your residence address with the documents that prove your marital status and financial condition. You may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and document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immigration service website at www.hikorea.go.kr. Go to the menu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Marriage) under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under Immigration Guide under Immigration on the website.

# Immigration Now



- 34 **우리팀 포커스** 이민특수조사대
-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이민관
- 40 **WOW 출입국 탐방**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46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80
- 48 **출입국 News**



내·외국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건전한 체류질서 이끄는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명칭 그대로 범법외국인 조사 전담부서. 전국에 걸쳐 활동하는 이민특수조사대는 우범외국인 동향조사, 조사자료 분석·수집 등 일반조사과 업무와 형사처분 대상자의 체포, 송치까지 담당하고 있다. 뜨거운 폭염도 아랑곳없이 조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일명 '특조대'를 만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시대.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수만큼 다양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수법도 교묘하고 대범해지는 추세다. 이민특수조사대(이하 특조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고, 선량한 내·외국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특조대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테마별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허위 국적취득, 허위 난민신청, 강제 퇴거된 신분세탁 외국인 및 브로커 적발 등의 형사사범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담팀은 여러 곳에서 입수한 정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작년 한해 구속 3건, 불구속 32건인데 반해 올해는 5월까지 구속 2건, 불구속 50건으로 형사사범 처리가 2배이상 증가했다.

특조대가 적발하는 범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신원자체를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범법행위가 적발되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형사처리가 곤란한 때도 많다고.

특조대 수장을 맡고 있는 이동권 대장은 "우리는 행정사범뿐만 아니라 형사사범까지 구속·처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조사과와 다르죠. 형사사범 처리는 업무 자체에 상당한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대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민조사관직은 특별사범경찰관으로 외국인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조사전문가. 특조대는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명의 특조대원들 역시 이민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조사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여러 가지 조사 및 수사기법을 전 사무소의 이민조사관, 조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루 10시간 넘게 함께 일하며 다져진 끈끈한 동료애와 조직력을 자랑하는 특조대는 항상 화기애매하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다. 앞으로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가 오더라도 든든한 특조대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웃으며 꿈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이동권 대장** 외국인·국적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리해, 국내의 건전한 체류질서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2 **김두열 사무관** 기획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국익을 위해 범법외국인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김진하 팀장** 적법절차를 지키며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선량한 재한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합니다.

4 **박수원 계장** 장기간에 걸친 기획조사와 증거수집으로 외국인 범법자를 검거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 이민특수조사대는?

- 2010. 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 2010. 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업무 개시
- 2012. 1. 이민특수조사대 5개 팀 확대 개편

### 주요업무

외국인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국제행사 안전 활동  
출입국관리 범죄, 경합범 범죄 수사  
법무부장관 지시사항 특별조사



천혜의 대자연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이민자의 나라 호주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 수도 캔버라 | 언어 영어  
인구 21,262,641 명(2010년 기준)  
기후 온대기후, 사막기후, 반건조기후  
종교 로마가톨릭 26%, 성공회 21%, 그리스도교 등



韓-濠 우호적 동반자로 밝은 미래 건설

올해로 수교 51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호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인 국가 가치관을 공유한 안보동맹국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밖에도 양국은 무역 및 인적교류, 문화소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Mirta Gonzalez 이민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주 이민성 소속으로 캐나다, 칠레 등을 거쳐 올해 2월 주한 호주대사관 이민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11년 동안은 호주 이민성 소속으로 그 전에는 비정부 기관과 함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기사와 논문 등을 작성하며 다문화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첫 이미지는 어떤가요?

부임 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거주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제 느낌에 한국의 이미지는 역동 그 자체라고 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색적이며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새롭고 놀랍습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특징과 기초는 무엇인지요?

호주정부는 다문화주의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양한 문화 존중, 참여적인 사회분위기 구축, 다문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 추구,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대응입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인종의 개인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존중하기 위해 '세계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이러한 기념일이 있나요?

한국에 '세계인의 날'이 있다면 호주에는 'Harmony Day'가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가 다문화사회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Harmony Day'의 주제는 '모두 다 속하다'이며, 다양함과 화합을 가장 중시합니다. 축제가 처음 개최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과 학교 등에서 스포츠, 스토리텔링 등 총 2만 5천 건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3월에는 5천 개의 행사가 마련돼 1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호주정부는 2000년부터 유학생보호법 ESOS를 시행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수준의 교육과정, 시설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유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호주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학비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유학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호주의 교육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대학에 입학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 습득은 물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최고의 시설에서 최신 장비를 이용해 각종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호주 사회는 안전하고 모두가 친절하며, 다인종이 어우러진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세계인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호주인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한국문화는 무엇입니까?

호주와 한국은 인적·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 호주인에게 한국은 익숙한 나라입니다. 여러 지인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본 결과 꽤 많은 호주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친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활기차고 친절하며, 각종 분야에서 앞선 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 젊은이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인종의 개인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화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흥대 근처를 자주 찾는다  
Mirta Gonzalez 이민관의 작품

### 한국에 거주 중인 호주인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호주인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분실 시 긴급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총선 때에는 대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 변호사,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임하고 지금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출입국본부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관광명소는 있나요?

불고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이미 호주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종종 즐기던 음식입니다. 서울에서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호주보다 훨씬 맛있더군요. 요즘엔 다양한 종류의 한국 김치를 맛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화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흥대 근처를 자주 찾아가는 편이죠.

###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근무기간 3년 동안 한국과 호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한 호주대사관의 비자 서비스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 About the Australian Embassy in Korea

Australia is a country where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live together harmoniously. As the Australian government fully recognizes the cultural and economic benefi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i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kinds of initiatives for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 Australian multicultural policy is based on four principles: 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building an inclusive and participative society; welcoming the economic benefits arising from multiculturalism; and promoting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while responding strongly to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ustralia has celebrated Harmony Day since 1999. The cultural diversity of Australia is recognized on March 21 each year. Harmony Day focuses on promoting diversity and harmony under the theme of "Everyone belongs". Last March, more than a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over 5,000 community events.

The Australian government supports the provision of quality education to all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Koreans.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ESOS) ensures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meet a number of requirements before they can enrol international students.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must assist students in adjusting to study and life in Australia, achieving their learning goals and satisfying the learning outcomes of their course. Australia has an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excellence in all areas of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al institutions offer an outstanding academic environment and state-of-the-art facilities.

The Australian embassy in Korea provides various services for Australians visiting and living in Korea. The embassy can issue passports and provides voting facilities for Australians during federal elections. It also assists Australians during emergencies and provides lists of local doctors, lawyers and interpreters.



93일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박지성

# 바다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 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 모** | 참가국 100여 개국



- <입장권 구매안내>**
-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어린이 경로 10,000원 (6월 28일부터)
  - ▶ 팜일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어린이 경로 5,000원 (6월 28일부터)
  -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
  - ▶ 전화예약 | 조직위원회 입장권부 (1577-1763) 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
  - ▶ 실물구매 | 광주은행 (1588-3388) 기업은행 (1566-2566) 이마트 (02-380-5678) 전 지점  
코레일 (전국 주요역 내 여행센터 19곳과 여수엑스포역에서 판매)  
전국 신세계백화점 (1588-1234)
  - ▶ 안내전화 | 1577-2012
  - ▶ 단체관람객 서비스센터 | 061-659-3585~9
- ★ 입장권 구매시 모든 전시관·공연·아쿠아리움 관람 가능 (아쿠아리움 주변에 아쿠아리움 30 일제정식관 무료관람 가능)  
★ 입장권(또는 예매권) 구매자에 대한 열차운임 30% 할인(왕복 1회)  
단, 열차운임 2회전 예매시 및 출발 또는 도착역이 순천 역인 여수엑스포역에 한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시·공연 정보안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내 [여수엑스포 길라잡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전시관 인터넷 사전 예약제 실시 (6월 23일부터 실시)  
입장권 번호와 전시관 예약번호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박람회 운영시간 변경안내 : 평일 08:30~22:30 / 토 일 공휴일 08:00~22:30

- <볼거리·즐거거리>**
- ▶ 80여개의 전시관과 체험시설과 8,000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
  - ▶ 세계가 주목하는 엑스포 팜 페스티벌이 엑스포 특설무대에서 매일 밤 공연
    - 기간 : 2012년 6월 16일 ~ 8월 11일
    - 시간 : 매일 저녁 8시
    - 장소 : 박람회장 내 엑스포 특설무대
    - 7.5(목) 2PM, 미스케이 / 7.9(월) 아몬미 / 7.10(화) 인순이 / 7.12(목) 소녀시대, EXO-K / 7.13(금) 싸이, EXO-K / 7.17(화) 에르메스 / 7.21(토) 슈퍼주니어, CNBLUE / 7.28(목) 국민홍보원 K-POP 특집콘서트 (비, KCM 외)
    - 8.4(토) 제9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 8.11(토) F7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
  - ▶ 7월 공연 안내
    - 바다사랑 창작대회
    - 사진작가 배영우 초청 강연
    - 엄홍길 디류 '바다로 가다'
    - 뮤지컬 '신나는 바다 놀이터'
    - 심포지엄 '해양 경제의 미래'
- ★ 위 공연 일정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아간 입장권 안내>**
- ▶ 화장 내 80여개 전시시설, 아간 문화공연 이용
    - 입장요금 : 성인 10,000원, 청소년 어린이 경로 특별관람권자 5,000원 (6월 25일부터)
    - 입장시간 : 17:00 ~ 22:00 (8월 12일까지 연장)
    - 판매장소 : 정문, 1층, 2층, 3층, 4층 아간관 매표창구 (16:30 ~ 20:00까지)



## 사무소에 공항업무까지 척! 척!

## ‘우리는 일당백’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청주사무소)는 25명의 직원들이 충북지역 재한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관할하고 있다. 청주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은 출입국사무소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청주국제공항 출입국심사까지 맡고 있다. 지난 5년 연속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공히 중부지역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청주공항 덕분에 직원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휴일도 반납한 채 ‘일당백’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청주사무소 직원들을 만났다.

예부터 조용한 선비의 도시로 알려진 충북 청주. 2003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으로 신축 이전한 청주사무소는 원통형으로 둘러싼 대리석과 붉은 벽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이다. 청주 사무소 정문을 지나 들어선 민원실은 다른 사무소와 조금 다른 모습. 민원인들의 혼잡시간을 대비해 민원실 옆에 민원인대기실을 따로 마련해 둔 것이다. 민원인들은 대기실에서 먼저 번호표를 뽑은 후, 정해진 시간에 창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면 된다. 여유로운 대기실 공간 덕분에 민원실은 늘 차분한 분위기. 그만큼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긴다. 작은 것이지만 민원인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가 돋보였다.

청주, 음성, 청원 등 충북지역 전반을 관할하고 있는 청주사무소는 출입국심사, 등록외국인 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사범 단속, 강제퇴거 등의 업무를 심사과, 관리과 2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심사과는 청주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도 전담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관리과도 출입국심사 업무를 돕는다고.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한때 ‘썰렁한 국제공항’으로 낙인 찍혔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친절할 출입국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주사무소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각종 행정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불법체류 사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 ‘모든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는 신념으로

새벽 3시, 청주공항 이용객의 출입국심사를 위해 사무소직원들이 나선다. 24시간 개방형 공항인 청주공항 운영방침에 따라 청주사무소도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야간업무도 감수해야 한다고.

“청주공항은 부정기 운항이 대부분이기에 운항이 있을 때마다 사무소직원들이 공항에 지원을 갑니다. 심사과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출입국심사를 맡고 있죠. 주말, 공휴일, 야간엔 총무·관리과 직원들도 공항에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직원들의 노고에 박상훈 청주사무소장은 고마움을 전한다.

내 일 네 일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는  
신념으로 충실히  
임하고 있죠





박동철 관리과장은 “유학생 관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엔 심사과에서 관리과로 지원을 나오기도 해요. 유동적인 인력관리로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를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주지하기 위해 아침마다 회의시간을 가져 본부의 지침과 업무 관련 내용 등을 공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는 노력도 잊지 않는다.

이 밖에도 월·목요일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사무소 주변 거리 청소까지. 청주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불평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내 일 네 일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는 신념으로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지원 활동

청주사무소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여성 2천 4백여 명. 이들에게 각종 사회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식’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이민여성 7명이 주축이 된 회사 ‘공존’ 설립이다. 2008년 사무소 내에 개설된 사랑방에 모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천연비누를 만드는 소규모 모임을 결성했고, 사무소는 이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이 만든 모임은 ‘공존’이란 회사로 성장해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만큼 자리를 잡았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식’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만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해요. 그래서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이사단을 구성하고 ‘공존’의 설립을 지원했죠.” 김순기 사회통합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처음엔 사무소의 조건 없는 도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부담 없이 친정집 같은 사랑방에 모여 경제적·문화적 소통을 하고 있다.

청주사무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사회통합교육을 받는 수강생인 동시에 시민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기도 한다. ‘월어민과 함께하는 시민 외국어 교실’이 바로 그것. 20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 선발된 결혼이민여성 강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강좌를 요일별로 진행하고 있다. 월·목요일 주 2회 중국어 교실을 담당하는 순슈리 강사는 “저의 재능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뻐요. 이전엔 청주사무소 한국어 교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거기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라며 사무소에 대한 큰 애정을 전했다.

### 단속만큼 불법체류 예방활동도 중요!

충북지역은 공단과 농·축산업이 발달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청주사무소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단속과 예방활동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유관단체와의 회의를 주관하고 각 중소기업에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전 방지에 애쓰고 있다. 기업에 직접 방문한 사무소 직원들은 업체 대표에게 사업자가 챙겨야 할 각종 서류와 절차에 대해 고용주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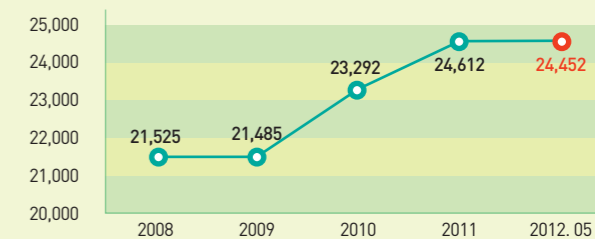
사무소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에서 각종 출입국정책을 미리 숙지해야 불법체류외국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 사무소의 예방활동은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직원들은 관할지역 내 대학에 방문해 유학생들에게도 비자와 유학자격 절차를 설명해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연병인 심사과장은 “외국인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뿐만 아니라 단속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체류자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해 힘들기도 하지만,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단속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죠.”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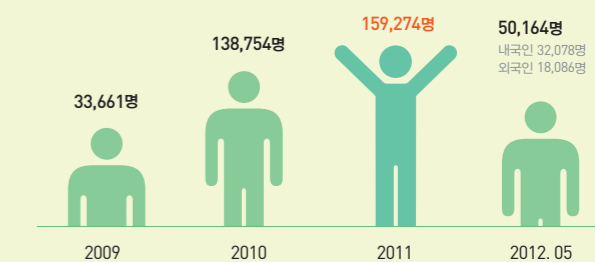
불법체류외국인을 줄이고 올바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청주사무소.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재한외국인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청주사무소 직원들의 넓은 마음이 청주의 옛 선비정신이 아닐까.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청주사무소의 앞으로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어본다.☺

## 근로자, 결혼이민여성 55%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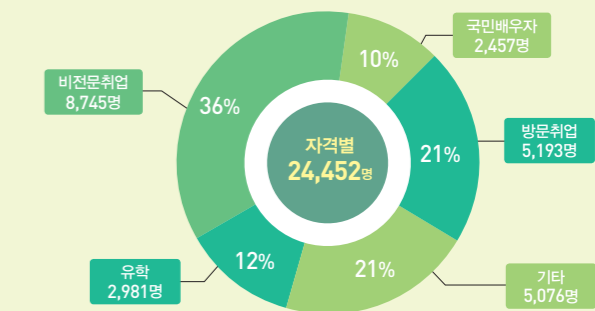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청주공항 출·입국자 심사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 “배려, 소통, 인화단결로 최고 서비스 제공”

충북 지역은 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종종 민원인대기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아쉽죠. 그때마다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인대기실에서 편안히 쉬다가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소 직원들은 서로의 업무를 미루지 않고 모든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고의 친절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직원 간 배려와 소통, 인화단결을 바탕으로 중부 제일의 출입국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청주출입국사무소 박상훈 소장



# 청주출입국사무소의 이모저모

# Events of Cheongju Immigration Office

행사명 Title	일시 Date and Time	장소 Location	내용 Context	대상 Subject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모집(3차) 3rd Opening of Appli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	07.9~7.20 July 9-20, 2012	www.socinet.go.kr 접수 Apply at www.socinet.go.kr	한국어,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Korean Language Training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Anyone who desires to participate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3차) 3rd Preliminary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07.28 13:00 July 28, 2012, 13:00	충북대학교, 세명대학교 Chungbuk University, Semyung University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한국어 진단평가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aluation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Program applicants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Midterm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2차 09.22 13:00 3차 11.10 13:00 2nd: Sep 22, 2012, 13:00 3rd: Nov 10, 2012 13:00	충북대학교, 세명대학교 Chungbuk University, Semyung University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결과 중간평가 Midterm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수료자 Language course graduates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Final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2차 8.18 13:00 3차 11.24 13:00 2nd: Aug 18, 2012, 13:00 3rd: Nov 24, 2012, 13:00	충북대학교, 세명대학교 Chungbuk University, Semyung University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결과 최종평가 Final evaluation of the full training courses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 수료자 Full course graduates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International Marriage Guide Program	매월 1,3주 수요일 14:00~17:00 Every 1st & 3rd Wednesday 14:00-17:00	청주출입국 회의실 Conference Room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국제결혼절차 및 출입국관리법령, 국제결혼 사례, 배우자 국가별 문화 등 안내 Guide on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Immigration Act, international marriage cases, culture by country of spouse	국제결혼 예정자 Prospective international couples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Happy Start Program	매월 2,4주 목요일 15:00~17:00 Every 2nd & 4th Thursday 15:00-17:00	청주출입국 회의실 Conference Room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절차 및 한국생활정착안내 가이드 Guide on the procedure for stay and settle in Korea	결혼이민자격 입국 초기부부 Newly married international couples with marriage migrant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Meeting with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매월 1회 Monthly	청주출입국 회의실 Conference Room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자원봉사활동 교육, 이민통합정책 발굴 및 토의 Guide on volunteer work,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making and discussion	각 국적별 대표자 및 결혼이민자네트워크 (무궁화봉사단) 회원 Representative of each country and Marriage Migrant Network member (Mugungwha Volunteers)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Korean Language Class for Immigrant	매일 (월~금) 10:00~11:00 Every weekday (Mon thru Fri) 10:00~11:00	청주출입국 다문화사랑방 Multicultural lounge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한국어 교육 Korean Language Training	한국어교육 희망 이민자 Any immigrant who desires to learn Korean language
이민통합 건강교실 Immigrant Integration Fitness Class	매주 목요일 11:00~12:00 Every Thursday 11:00-12:00	청주출입국 체력단련실 Fitness Room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생활댄스, 방송댄스 Aerobic dance, pop dance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member

행사명 Title	일시 Date and Time	장소 Location	내용 Context	대상 Subject
원어민과 함께하는 시민 외국어교실 Foreign Language Class with Native Speaker for Citizen	중국어 (월, 수), 영어 (금) 일본어 (화, 목), 베트남어 (화) 13:30~15:30 Chinese (Mon, Wed) English (Fri) Japanese (Tue, Thur) Vietnamese (Tue) 13:30-15:30	청주출입국 다문화사랑방 Multicultural lounge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외국어 교실 Foreign Language Class	외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Any citizen who desires to learn foreign language
이민통합 건강검진 Immigrant Integration Medical Check	매월 넷째 월요일 11:00~12:00 Every 4th Monday 11:00-12:00	청주출입국 다문화사랑방 Multicultural lounge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기초 건강검진 (혈압, 혈액 등), 임신부 건강 상담 Basic medical check (blood pressure, blood test), Medical counseling service for pregnant women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member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육 Class for Driver's License Written Test	매주 화요일 11:00~12:00 Every Tuesday 11:00-12:00	청주출입국 다문화사랑방 Multicultural lounge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 교육 Preparation for written test of driver's license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이민자 누구나 Anyone who desires to attend
다문화 영농체험장 Multicultural First-hand Farming Experience	3월~7월 March thru July	청주출입국 앞 다문화 영농체험장 Multicultural first-hand farming experience garden in front of Cheongju Immigration Office	다문화가정 텃밭체험 First-hand farming experien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희망 다문화가정 Any multicultural family member who desires to participate
여성결혼이민자 전통문화체험 First-hand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for Female Marriage Migrant	7월 July	청주향교 Cheongju Confucian Temple	차례, 제사상차림 및 예절 배우기, 다도, 전통 떡 체험 Lessons on ancestral rites, table setting and manners, Tea ceremony and rice cake making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member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바자회 Charity Sale to Promote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10월 October	청주출입국 옆 거리공원 Street Park next to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아나바다 장터, 세계 음식 바자 Charity sale, Taste of the world	일반 시민 Citizen
김장체험 Making Kimchi	11월 November	다문화 영농체험장 Multicultural first-hand farming experience garden	김장체험 및 불우이웃 김장지원 Making kimchi and Assisting the needy in kimchi-making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및 협력단체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member and partner group
아듀! 2012 송년행사 Adieu! 2012 Farewell Party	12월 December	청주출입국 회의실 Conference Room in Cheongju Immigration Office	웃음치료, 화합한마당 등 Laughter Therapy, Harmony Festival	청주출입국 전 직원가족 및 다문화사랑방 회원 Entire staff and their family member, multicultural lounge club member at Cheongju Immigration Office

# OVERSEAS NEWS BRIEF

세계 여러 나라의 출입국 관련 정책 및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입국정책을 알아보고, 최근 출입국 관련 뉴스를 통해 세계 동향을 파악한다.

# 해외단신



CANADA

## 01 캐나다 난민법안, 하원 승인 위한 작업 착수

캐나다 정부의 포괄적 난민법안이 하원에서 마지막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헝가리인의 난민 신청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소위 '가짜' 망명 신청 근절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캐나다 이민 장관 Jason Kenney는 대부분이 거절·폐기되거나 철회되는 헝가리 집시들의 난민 신청 남발을 재차 지적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설득해 왔다. "2011년 동유럽 국가 출신의 망명 신청 건은 모두 사실상 신청자에 의해 철회되거나 난민위원회에 의해 거절되었지만, 캐나다 국민은 이러한 가짜 신청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민 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는 전했다.

### 이민 시스템 남용행위 근절 위해 법안 불가피

캐나다 정부는 과거 체코, 멕시코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자를 다수 양산하는 국가에 대하여 비자발급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 이슈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을 선택 두지 못하고 있다.

체코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enney 장관은 법안C-31의 안전 국가 조항(safe country provisions)이 캐나다 정부의 비자발급 제한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자발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캐나다의 통상 및 외교적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만연해 있는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전 국가 조항은 이민 장관에게 난민을 양산할 가능성이 낮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국가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항소할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 난민 신청자들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추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조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이민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론토의 집시 커뮤니티 센터장 Gina Gsanyi-Robah는 이민난민위원회를 통해 위협을 가하는 정부의 반집시적 언사를 비난해 왔으며, 집시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들이 난민 신청을 철회·폐기한 것은 캐나다 난민 제도의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Postmedia News, 2012.6.10]

## 02 독일, 16년 만에 이민자 최고치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독일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 숫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그리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숫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약 958,000명의 이민자가 독일로 이주했고, 679,000명이 독일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새로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GERMANY



POLAND

## 03 폴란드, 불법체류 합법화조치로 수천 명 이민자 혜택

지난 1월 예고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인해 최소 4년 이상 폴란드에 불법체류한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2010년 이전에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다. 폴란드에는 현재 약 4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그 중 약 2천 명에 이르는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이 사면을 신청했으며, 우크라이나인 1,900명, 파키스탄인 1,500명이 현재 사면을 신청한 상태이다.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를 위한 신청서 접수는 지난 6월 25일로 마감되었다. Rafal Rogala 폴란드 이민국장은 "이번 사면조치 대상인 불법체류자들은 사면조치의 혜택을 누리고자 다른 EU지역에서 많이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폴란드 라디오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폴란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최소 폴란드에 4년 이상 거주하였고, 6개월 이상 폴란드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되었다. 합법화조치를 받은 사람은 2년간의 체류허가와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BBC News, 2012.7.3]



THE UNITED KINGDOM

## 04 영국, 그리스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방안 강구

David Cameron 영국총리는 그리스가 만일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리스인들의 영국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Cameron 총리는 의회에서 "유로존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리스 국민의 자유로운 EU지역 이동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해 심사를 마쳤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고 기존 EU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수십 만 명의 그리스인들이 이 체류문제로 인해 혼란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의 영국 입국권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는 노동당 대표 Keith Vaz의 질문에 Cameron 총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BC News, 2012.5.26]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멘토링 과정 참여

## 사회적 약자 위한 '따뜻한 법치' 펼칠 것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권 장관은 결혼이민자로부터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우리 사회 적응문제 등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방문에서 권 장관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여 신뢰를 얻겠다는 평소 지론처럼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18개 언어 64명의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 난민을 위한 통역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5월 23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18개 언어, 64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은 지난 2월 공개모집 후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4월 통역인 교육을 받은 후 최종 선발됐다. 위촉된 통역인들은 통역인 풀(Pool)로 구성되어 난민심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통역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통역인들은 지난 4월 20~21일과 27~28일 유엔난민기구(UNHCR),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진행된 난민인정절차, 법률용어, 통역실습, 통역인 윤리 등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난민심사 시 전문적인 통역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제10회 출입국관리 공무원 정책발표회 개최

## 발표된 과제, 보완과정 거쳐 정책에 반영할 것

지난 6월 8일 제10회 출입국관리공무원 정책발표회가 개최됐다. 정책발표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현장중심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소속사무소의 심사를 거친 38명 중 본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10명이 최종 정책발표회의 참여대상으로 선정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우수상은 '출입국사범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한 서울사무소 유미숙 반장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효율적인 영주권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한 춘천사무소 최대호 계장과 '보호외국인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한 청주보호소 최인섭 계장이 수상했다. 정책발표회에 제안된 과제들은 보완과정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출입국·외국인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 취득 위해선 일정 기간 국내거주해야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한발 앞서 준비하기 위해서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선진형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 19만여 명 중 4만 명 선발

##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방문취업 추천



지난 6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컴퓨터 공개추첨이 실시돼 총 4만 명이 선발됐다. 이날 추첨은 기술교육 75,978명, 방문취업 117,726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2만 명을 선발했다.

기술교육 대상자는 올해 7월~11월 중 단기 사증이 발급되며, 방문취업 대상자는 내년 1월~6월 간 방문취업 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추천 당첨자의 동일인 확인 여부 등을 위해 사증신청 시 정밀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상륙허가제' 5월 27일 시행

## 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열린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가능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시킨 '관광상륙허가제'를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4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상륙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한·중 간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K.I.S. Information

복수비자 입국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간소화

###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오는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이 확대되고,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먼저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사람 중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은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panded Eligibility and Streamlined Visa Processing for Multiple Entry Visa

### Easier Access to Korea for Chinese Visitors

From this August, a wider range of eligible Chinese will receive multiple entry visas to Korea and b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without a visa. The visa issuance process is scheduled to be streamlined as well. The eligible Chinese for multiple entry visas will be ranged from medical tourists to employees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state-owned companies in China. If a Chinese person who had been issued a medical tourist visa or multiple entry visa is found to have no criminal history, the person can submit the application form only to apply for the visa.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 전면 시행

### 미국 방문 대면심사 없이 바로 통과

6월 13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이민국의 대면심사를 받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과 상호 무인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3번째이다.

Korea-US Reciprocal Trusted Traveler Program

### Clear Immigration without Having to See Officers Face to Face at US Airports

Low-risk, pre-approved Korean citizens can clear immigration at US ports of entry, using designated kiosks without undergoing face-to-face inspection with USCBP officer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U.S. Customs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greed to introduce the reciprocal trusted traveler program, as 2 million people tra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ry year.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Asia that has the reciprocal trusted traveler program with the U.S, and the third in the world, following the Netherlands and Canada. Further information and services are available at www.hikorea.go.kr.

Blue post는 <공존> 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공존>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BLUE POST

## 2012 SUMMER

<공존>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소식지를 통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 기사가 실려 여수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체험 Korea!' 코너는 부산의 매력을 잘 표현했더군요.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사진도 좋고 영어 번역도 쉬워서 무난하게 읽었습니다.

**김희용** 전남 여수시 광무동

저는 그동안 '난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팀 포커스' 난민심사팀 편을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난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인 만큼 심사관님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고통받고 있을 난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세요!

**곽선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저는 <공존>의 오랜 팬입니다. 이번 호에서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노무관님의 말씀처럼 한국과 필리핀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도 정말 멋있어요. 오랜 팬으로서 <공존>이 다문화인들을 대변하는 소식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전병섭** 광주 남구 구동

우연히 <공존>을 보게 됐는데 유익한 내용들이 정말 많더군요. 올여름 친구들과 일본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출입국심사에 대한 기사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미 천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니 놀라워요. 저도 이번 휴가 때 꼭 이용해 보고 싶어요.

**박금선** 충남 천안시 풍세면

이번 봄호에서 '스위스 할머니'에 관한 기사가 인상적이에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춘을 모두 바치신 걸 보고 토종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의 아이들은 물론 유기견까지 돌보신다니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예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셔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서지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옷에서 배우는 한국



## 더워야, 물럿거라! '모시옷'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더위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한여름 폭염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에어컨, 선풍기도 없던 시절, 선조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까? 지금처럼 기능성 섬유가 발달하지도, 서양처럼 짧은 소매의 셔츠나 반바지를 입는 문화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지혜롭게 활용해 더위를 이겨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전통 의상인 '모시옷'이다.

'모시옷'은 모시풀에서 천연재료인 모시 실을 뽑아내 만든 옷이다. 천연섬유인 모시는 바람이 술술 통해 시원한데다 고급스러운 멋까지 겸비한 한국의 전통의상 소재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살갗에 닿는 그 어떤 것도 짜증스럽기 마련. 그러나 모시옷을 입으면 이런 걱정은 필요 없다. 모시는 울이 가늘고 촉감이 깔깔하고 통풍이 잘되기 때문에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뛰어나 수분흡수와 배출도 빠르기 때문에 시원함이 더하다. 실제로 모시옷을 입으면 체온을 1~2도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모시옷은 모시풀에서 모시 실을 뽑아내 베틀로 정성스럽게 짜이지만 완성된다. 사람 손끝의 섬세함으로 실을 만들고 베틀을 사용해 옷감을 짜내는 제작방식은 만드는 이의 정성과 지혜가 어우러져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인내와 정성이 담긴 옷이지만 구김이 많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도 사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여러 가지 색을 모시옷에 입히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천연'을 강조하는 웰빙 바람을 타고 모시옷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무더운 이 여름 이산화탄소 배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환경을 위해, 우리 옛 조상들이 자연에서 지혜를 얻어 더위를 이겨냈듯이 실내 냉방기 온도를 조금 올리고 멋스런 모시옷을 입는 지혜를 배우는 때이다.